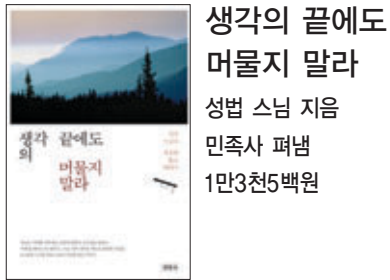


#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 ~ 1/7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6	달의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7	붓다 수업	법상	민족사
3	알고 보면 괜찮은 마가	마가	불광출판사	8	치유하는 유식 읽기	서광	공간
4	비율수록 가득하네	정목	생애편자	9	날마다 새롭게	일여	예담
5	당신을 만난 건 축복입니다	정전	한겨레출판사	10	생각의 끝에도 머물지 말라	성법	민족사



## 부처님께서 진정 바라는 것은 무얼까



**생각의 끝에도 머물지 말라**  
성법 스님 지음  
민족사 펴냄  
1만3천5백원

지금까지 왜곡되고 잘못 인식해온 불교 교리, 승가의 잘못된 행태 등에 대해 불편한 진실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비판하면서 대안을 제시한 책이다.

책이 전하려는 메시지는 '부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얼까?'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이다. 머무는 순간, 곧 집착하는 순간 이미 불교에서 멀어진다. 뜻을 품고 있는 부처(‘생각의 끝에도 머물지 말라’)에서 벗어나 수 있는 책은 오늘 날 불교의 문제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부처님께서는 오늘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책은 총 일곱 개의 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 면에서 한국 불교를 걱정하고 있다.

책은 긴 ‘머리말’에서 한국불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저자는 현재의 한국불교를 19세기 열세주의보다 훨씬 위험한 낙관주의에 깊이 물들어 있다고 보고 있으며, 한국불교가 부처님 입멸 후 1500여 년이 지나 중국에서 일어난 선불교의 선사들의 입에서 나온 ‘네가 곧 부처다’라는 말을 부처님의 요체로 인식하는 착시에 함몰되어 있고, 한국불교가 수행을 하는 데는 무식할수록 유리하다든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도 보면 안 되고, 세간의 이치와 논리는 하찮은 것이기에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조차 차한대야 비로소 수행이라 말할 수 있다고 하는 ‘중국의 선수행’에 치우쳐 있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

또한 불법이 무엇인가를 중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45년을 길에서 사신 부처님과 달리 ‘네가 부처다’를 외치는 선사들은 ‘불법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다른 똥 막대기’라거나 그 말도 번거러워 ‘할’만을 외치며 1500년을 지내왔으며, 부처님께서 깨달은 ‘연기’라는 실체를 ‘다른 똥 막대기’라는 화두를 타파하는 것으로 깨달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염세적인 출발에서 인간이

기대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서는 깨달음이라는 극적 반전으로 낙관적 회향을 보여 주셨지만, 이들은 “네가 부처다”라는 낙관적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부처님이 맞다는 당연한 회향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이 선불교의 한계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1600년의 역사로 인해 얻어진 문화적 재산으로 경제적 수혜를 누리고 있는 한국의 승가임에도 역사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 타종교에 비해 사회적인 기여가 많이 부족한 한국의 승가를 염려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수혜로 인해 출가정신의 정체성 또한 희미해진 경향이 있다며 앞으로 교구본사나 전통사찰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보시의 당사자인 재가불자가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 외에도 책은 ‘연기’ 등 타종교와 비교가 되지 않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국 승가는 부처님의 교설의 진위를 실증적이며 합리적 논리로 추구하고는커녕, 부파불교

### 오늘날 한국불교의 문제점 지적 선불교의 '네가 곧 부처다'

**불법의 요체로 보는 건 '착시' '교' 배제한 선수행 옳지 않아**

**불교의 정체성 '실증적 철학적 종교'**

보다 더 조악한 사상들도 방편이란 이름으로 수용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며 흔들리고 있는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염려하고 있다. 책은 유일신에 의지하는 등의 타종교와 비교하면서 불교의 정체성을 완벽하고 실증적인 철학적 종교라고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부처님 입멸 후 400년경에 이루어진 제4차 결집 이후 단 한 번의 결집과 유사한 ‘사상 집결’도 없었다며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한국불교와 승가가 안고 있는 고질적이고 심층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또 한 번 ‘결집’이 필요하다며 5차 결집과 결집을 위한 경전 전산화불사를 제안하고 있다.

인도의 복잡한 사상에 버금가는 중국의 각종 사상과 함께 유입되고 신앙화된 한국 불교는 그래서 가장 하이브리드(hybrid: 이질적 요소가 섞인 혼성물)한 종교가 되었다. 노골적으로 비불교적인 것은 제외하

더라도 지장신앙, 관음신앙, 정토신앙, 미륵신앙, 중관사상과 유식사상, 천태사상, 선불교, 밀교 여기에 더해 수많은 논서들을 때론 상충되는 면은 접어두고 다 읽었다고 단정하며 수용해 왔다. 1600여 년 동안 쌓인 이 모든 사상들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들을, 불교를 대변하는 ‘연기’와 ‘제행무상’, ‘제법무아’를 갖대삼아 사상적 거리의 원근을 분명히 해 두는 2000년만의 제5차 결집을 시작하자라는 것이다.

위와 같은 염려와 바람으로 책은 불교의 탄생부터 부처님의 깨달음, 교리 발달사, 수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순리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인간 최고의 지성인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국에 전해지면서 중국의 기호에 가미되지 않았는지 반문하고, 중국에서 발달한 선수행, 조계종이 내세우는 간화선과 선사들의 가르침의 전달 방법은 완전한 것이냐를 물으면서 현대인들에 맞는 수행법을 창안하여 제시하고 있다.

35개 문안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록 ‘지금 붓다께서 계신다면’은 저자가 한국불교의 총체적 문제들을 하나씩 지적한 내용으로 책의 정수요, 책에서 설파하고자 한 메시지를 함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세상의 물질적 혁명은 결국은 정신적 세계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에, 불교도 혁신을 해야 함을 거듭 강조하면서 오늘날 논란이 분분한 부처님의 수행 방법에 대해서도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위빠사나, 명상, 선수행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저자가 경험을 바탕으로 창안한 현대인에게 맞는 수행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승가는 수행의 ‘마장’, ‘장어’의 개념조차 사라져 원로 스님들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짚어주고 있다.

책은 그동안 출간되었던 경전해설서와는 달리 불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총망라하여 다른 것으로 《이편사화(화엄경)》, 《마음 깨달음 그리고 반야심경》 등 내놓는 책마다 방향을 일으켰던 저자의 기존의 책들과도 또 다른 차원으로 저자의 사상과 견해를 응축해 놓은 책이다. 비교적 긴 머리말부터 부록에 이르기까지 불교의 태동과 교리, 경전 수행, 한국불교 등 불교 전반을 총체적으로 다루면서 한국불교의 현상을 바로 보고 바른 불교를 세우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박재완 기자**

## 달을 품고 일체를 아우른 1400년 이야기



**달을 품고서 일체를 아우른 절 오대산 월정사 이야기**  
이도훈 지음  
오대산 월정사 펴냄  
1만5천원

오대산은 성지 개념이 살아있는 산이다. 또한 불교적으로 오대산은 문수보살이 상주하는 문수화엄의 성지이다. 이산에 ‘달을 품고서 일체를 아우른 절’ 월정사가 있다. 책은 1400년의 깊은 역사를 가진 월정사에 대한 이야기다.

책은 수 천 년 전 천신과 산신이 자리하다가 부처와 어울려 하나가 된 뒤, 신라 시대부터 지금에 이르는 월정사의 내력과 개산조 자장율사에서 나옹, 사명, 한암, 탄허, 만화 스님까지 월정사의 역대 조사들의 이야기, 오대산을 비롯해 전나무숲길 등 월정사를 이루는 것들을 통해 월정사를 이야기하고 있다.

스물 한 편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실과 사실의 틈 사이에는 상상력을 통한 소설적인 재미가 추가되었다.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설명과 함께 소설적 재미가 풍부한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독자들로 하여금 이야기의 연결을 상상하도록 돕는다. 또한 풍부한 사진자료와 증언을 인용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자장율사가 터를 고른 일, 구정 선사 사를 아홉 번이나 바꾸어 걸은 끝에 도통한 일, 문수보살이 나타나 세조의 등을 맡아준 이야기, 절을 지켜낸 한암 스님에 대한 이야기 등, 월정사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을 쉽고 흥미로운 형태로 들려준다.

제1장, ‘오대산 월정사, 화엄의 으뜸 도량’에서는 인연이 있는 땅에 자장 율사가 가람의 터를 고른 일에서 시작하여 문수보살이 나타나 신에 이르기까지 화엄의 으뜸 도량이라는 공간에서 부처와 사람이 어울려 빛어낸 기억을 사실과 설화를 결합하여 풀어냈다. 자장율사가 월정사를 세우고, 신화 거사와 신의 두타가 중창하고, 산신과 부처가 하나가 되어, 성덕왕이 친히 이곳에 와서 화엄만다라를 경영하고 강릉 태수에게 이곳을 잘 보전하라는 전교를 내리는 바람에 아름다운 수로부인이



문수화엄의 성지로 불리는 오대산에 자리한 월정사

### '내력·조사·이루는 것' 통해 21편의 이야기로 구성된 이야기 상상력 통한 소설적 재미 추가

함께 행차하고, 구정선사가 술을 아홉 번이나 바꾸어 걸은 끝에 도통하고, 문수보살이 나타나 세조의 등을 맡아준 이야기를 실었다.

제2장, ‘월정사를 장엄하신 조사들’에서는 남다른 신심과 도력(道力)으로 월정사를 빛낸 조사들의 이야기를 평정 형식으로 펼쳐고 있다. 선사인 나옹 화상 혜근은 말 한 마디로 북대에 있는 나한상을 상원암으로 이운했다.

사명 대사는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도움을 받아 월정사의 중창에 매진했으며, 한암 스님은 6.25 한국전쟁 때 절을 태워 부는 국군에 맞서서 법당에 들어가 정좌한 채 절을 지켜냈다. 탄허 스님은 20대에 삼교에 통달한 실력으로 수많은 강백과 탁월한 학승을 길러내며 경전을 번역하여 대중들이 쉽게 불성을 깨닫게 했다. 그리고 만화 스님은 승가오칙을 평생 실천하여 오대산의 중창주가 되었다.

제3장인 ‘월정사를 품어주고 꾸며주는 것들’에서는 오대산에서 시작하여 상원사 동종에 이르기까지, 월정사와 연기관계를 맺고서 이를 품어주고 꾸며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책은 월정사의 각 공간에 당도한 여행객의 시점에서 동선에 따라 주변의 풍경을 기술하는 가운데, 그 풍경에 깃든 기억들

을 풀어내고 주관적 감상을 더하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맨 먼저 어머니처럼 부드럽고 너른 품을 가진 오대산을 조망하며 깃들여 사는 생명을 떠올리고, 이어서 일주문에 당도하여 전나무 숲길을 걸으며 명상하면서 절 이름에 담긴 의미를 음미하고, 천왕문에 이르러선 사천왕과 벽화에 얽힌 이야기를 되새기고, 마당에 들어서서 하늘 높이 치솟는 팔각9층탑을 보며 팔정도를 향한 수직향상의 미학에 감탄하고, 그 옆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는 석보보살좌상에 얽힌 내력과 아름다운 감상을 한다.

절을 지나 부도탑을 보며 고승들의 정신의 깊이에 이르러 하고, 더 깊이를 재촉하여 오대산 사교를 보며 《조선왕조실록》에 담긴 사관의 직필 정신에 대해 생각하고, 오대산에서 득도하여 신선이 된 한무위를 기린다. 마지막으로 상원사에 올라 한국 종의 남상이 된 동종의 아름다운 비천상을 보며 가슴 깊이 울리는 진리의 동그런 소리를 듣는다.

이상과 같이 책은 철저히 역사적 사실과 관련 기록에 기초하면서 사실과 사실 사이의 틈은 상상을 허용하여 소설적 재미를 추가했다. 이에 선행연구를 참고했다라도 따로 각주를 달지 않고 각 이야기 끝에 참고문헌으로 정리했다.

이 책을 읽으며 독자는 월정사, 그리고 한국불교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될 것이다. 월정사의 역사를 통해 한국에 스며든 불교문화의 깊이를 이해하고, 한국불교에 대한 전체의식을 시대의 벽을 넘어 마주하게 될 것이다.

**박재완 기자 wanhollo@hyunbul.com**

3년여 만에 출간한 '목탁소리' 법상 스님의 화제의 신간

# 법상 스님의 불교 교리 콘서트

출간되자마자 출세작 호응을 커다란 일으키며 재판

## 붓다 수업

웰빙, 힐링, 뉴에이지, 영성, 치유, 명상, 시크릿, 마인드풀니스 등의 원천인 붓다!

진지한 깨침의 글들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법상 스님이 3년 만에 '붓다 수업-법상 스님의 불교 교리 콘서트'를 출간했다. 시공을 초월하여 대중과 소통해 온 저자는 붓다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구현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금은 붓다 시대. 이제 붓다 수업은 불교신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사랑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들어야 할 인생 수업이다. 이 책은 진리를 표방하는 단체며 가르침이 많아 욕식을 가리기 어려운 시대, '힐링'이 유행처럼 번져나가는 시대에 '그 모든 것의 원천'인 붓다의 가르침을 담아놓았다.

■ 법상 스님 지음 | 신국판 372쪽 | 15,000원

무아(無我)와 소녀시대의 홀로그램, 당신은 실재하는가? '목탁소리' 법상 스님의 마음공부로 이끄는 신개념 불교교리서

인주사 9구입 문의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워터빌딩은 1131호 민족사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s.com 이메일 minjoksabook@naver.com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injoksa 농림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웅)

성법 스님의 까칠한 불교 이야기

# 생각의 끝에도 머물지 말라

■ 성법 스님 지음 | 신국판 304쪽 | 13,500원

“종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의 영혼과 순수성을 담보로 '거래'해서는 안 된다” 꼭꼭 정곡을 찌르듯 불편한 진실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성법 스님의 까칠한 불교 이야기.

한국불교의 현실을 바로 보고 바른 불교를 세우고 있는 저자의 경계 '생각의 끝에도 머물지 말라'.

“스스로를 정화하지 못하고, 무지와 탐욕 속에서 평생을 살아간다면 그 삶이말로 가장 비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머리말 중에서 -

Minjoksa Tel. 02)732-2403~4

올바른 종교생활을 위한 촌철살인

# 천당과 지옥은 번지수가 없다

“천국을 탐(貪)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 천국은 탐착의대상이 아니며, 탐착은 그대로 지옥이다”

■ 김진태 지음 | 신국판 184쪽 | 12,000원

세상 사람들이 종교계를 경계하는 시대, 위험하고도 잘못된 환상에서 벗어나 올바른 종교생활과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촌철살인, 불교계를 전파하는 최고의 처방이 '수행'이라고 강조하는 호법신장 김진태 교수의 《천당과 지옥은 번지수가 없다》.

사람을 변화하게 만드는 책의 향기가 있다면 이런 글이 아닐까? 정제된 문장에 담겨 있는 촌철살인(寸鐵殺人)의 한마디는 저자의 깊은 고뇌를 엿볼 수 있다. 붓다와 예수께서 이 시대에 계시다면 분명히 이 한마디를 하셨을 것 같다. “선재 선재(善哉 善哉)로다!” 라고.

- 통사서 연구수학 해본 스님의 후천사 중에서 -

도서출판 동승동 Tel. 02)732-2403~4